광주 집값 떨어지는데 아파트 구하기는 '별따기'

오피스텔·단독주택 주도 3개월 연속 하락

대기수요 꾸준한 소형아파트 나홀로 강세

광주지역 전체 집값이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6월 0.09% 오른 것을 기점으로 지난 7월 -0.03%, 8월 -0.06%, 9월 -0.02% 하락하는 등 3개월 연속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형 오피스텔과 수요가 적은 단독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광주지역 전체 집값 하락을 이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0을 기준으로 12월 99.6을 기록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며 지난 9월 99.5에 머물렀다. 오피스텔도 입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82㎡, 105㎡ 크기의 소형아파트 가격은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효과로 올 6월까지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은 지난 7~8월 매매가 줄어들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이사철인 9월 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소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1억2844만4000원이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2950만9000원으로 106만원이나 올랐고, 지난 9월에는 1억2951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남구도 지난해 12월 1억4362만2000원에서 지난 9월 1억4455만8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소형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 원인은 당분간 광주지역에 신규 입주할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자료를 보더라도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가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6월 취득세 인하효과가 종료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던 7~8월, 숨죽였던 아파트 구입대기 수요가 가을철 '집 장만'에 나선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정병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집이 필요한 수요는 꾸준하고, 그 수요들이 현재 매매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상무지구와 운암동, 하남단지 등 소형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매물 자체를 구경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water 광주전남본부 사회적기업 결연식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나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가 지난 8일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식을 갖고 지역 중소기업대상의 판로지원에 나섰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취약계층 지원 기여도가 높고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인 아미스(주)와 결연을 맺었으며 결연 후 자체 구매상담회도 가졌다.

K-water는 결연기업의 판로지원 외에도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 생산제품의 대내외 홍보활동 전개 등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된다.

이날 개최된 중소기업 대상 자체 구매상담회는 K-water 광주남지역본부 설계·계약담당자와 중소기업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동반성장 및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분야별 중소기업과 K-water 직원간 구매상담회를 통해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신송운 본부장은 "중소기업대상 자체 구매상담회는 중소기업 제품 정보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생산자와의 교류창구"라며 "향후에도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준금리 연 2.50% 유지

한은 5개월 연속 동결…내년 성장률 3.7%로 낮춰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0%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로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2013~201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김 총재는 "3.8%는 성장잠재율(잠재성장률)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라 (성장률이) 낮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7월 이후 본격화한 신흥시장국의 위기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상응해 수정한 것"이라며 "한국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춰 잡은 것도 예상해 이번 발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내년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전망치(3.9%)보다 0.1%포인트 낮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정부의 세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올해 1.5%포인트에서 내년 2.0%포인트로 0.5%포인트, 내수가 올해 1.2%포인트에서 내년 1.8%포인트로 0.6%포인트 커질 것으로 봤다.

한은은 내년에 취업자가 38만명 늘어 올해(33만명 예상)보다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亞미래산업과 융·복합'…ASPA 연례회의 지난 9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7차 ASPA (Asia Science Park Association) 연례회의가 열린 가운데 10일 행사 참가자들이 컨벤션홀에 모여 손을 흔들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산업과 융·복합'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융합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9월말 자동차 등록대수 1930만대

작년말보다 2.2% 늘어…국산차 줄고 수입차 증가

국토교통부는 9월말 현재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29만3927대(인구 2.65명당 자동차 1대)로 지난해 말보다 2.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2월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말 보다 2.8% 늘어난 194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완전변경, 부분변경, 연식변경 등 40여종의 차량 모델이 출시된 가운데 국산차는 근무일수 감소, 파업 등으로 한국GM과 쌍용차를 제외하면 등록 대수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차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2000만~3000만원대 모델이 늘어난데다 디젤차의 인기, 젊은층의 선호성향 등이 맞물려 7월에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등 3분기에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3분기까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르노삼성의 신규 등록대수는 104만7천719대로 작년 동기보다 0.5% 감소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1.3%와 31.8% 증가했고 현대차는 1%, 기아차는 3.1%, 르노삼성은 5.7% 줄었다.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 1위는 현대 아반떼(7만2502대)가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기아 모닝(7만2502대)과 현대 그랜저(7만267대)다. 3분기까지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1만86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조사는 재규어 랜드로버, 포드, 폴크스바겐 순이었다.

올해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BMW5 시리즈(1만3390대)이며 2위는 벤츠 E클래스(1만8대), 3위는 폴크스바겐 골프(4736대)다. 상위 10위권에 독일 제조사가 아닌 모델은 도요타 캠리가 유일했다. /연합뉴스

광주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흐림'

전망지수 20포인트 하락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가 1분기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1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3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8개 소매유통업체의 전망지수가 기준치(100) 아래인 '8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분기(105)보다 20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4분기 경기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00)을 제외한 전 업태가 기준치(100)보다 낮은 전망치를 보이며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향후 소비부진이 우려되면서 4분기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약해진 것 같다"며 "정부는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1.40 (-1.36) ▲ 코스닥지수 529.04 (+0.21) ▲ 금리 (국고채 3년) 2.87% (+0.02) ▼ 원·달러 환율 1073.60원 (-0.10)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송성홍씨 추대

제8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에 송성홍 ㈜디자인그룹 송가솜씨 대표가 선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장호직)는 10일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회계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로 나온 송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함이 많지만 중차대한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대부고와 국민대학교 장식미술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신문사 운영위원과 광주시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송 대표는 오는 11월1일부터 4년간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이끌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